研究資料

재촌 기혼여성들의 성혼사례 분석

이 영 대*
정 득 진**

Ⅰ. 서 론
Ⅱ. 전국단위의 지역별 미혼인구수와 성혼정도
Ⅲ. 재촌 기혼여성들의 성혼사례 분석
Ⅳ. 분석결과와 정책과제

Ⅰ. 서 론

최근 농촌청년들의 결혼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청소년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의식(가치관)조사(김성수 외 3인 1985, 최민호 외 2인 1985)와 재촌 및 취업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의식조사(충북 농촌진흥원 1987) 등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와 농촌지역의 통혼권에 관한 조사연구가 몇 편(여중철 1978, 최재율 1975, 이성해 1978, 한상복 1983, 이화숙 1986, 이한방 1987 등)이 있다.

또 농촌청년의 결혼문제에 대한 조사자료(최민호 외 2인, 1985)와 세미나 자료(농협중앙회, 1988)가 있다. 전국적인 수준으로는 공세권과 김은주(1988)와 이영대(1989)에 의하여 지역별로 미혼남녀 인구수 분석을 통한 농촌청년 결혼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부락단위에서는 최재석(1988)이 재촌청년의 혼인난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농촌청년의 혼인난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은 편이나 그 해결 방안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편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최근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의 대상인 재촌 기혼여성들의 성혼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농촌청년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었다.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이론들로서는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적, 성격적 특성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이끌려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homogamy theory, 사람은 자신과 반대되는 성격을 갖춘 사람에게 이끌려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complementary need theory, 초기

* 책임연구원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

에는 사회적 특성과 가치관이 같은 것에 이끌리고 다음 단계에 가서는 서로 보완하는 점에 이끌려 결혼한다는 filter theory, 제1단계에서는 외모, 성격, 명성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이끌리고, 제2단계에서는 가치관이나 태도에 이끌리고, 제3단계에서는 결혼후의 각자의 역할을 잘 해 낼것인가에 관한 역할기대에 이끌려 결혼을 한다는 stimulus-value-role theory들이 있다 (Stephen J. Bahr, 1989). 이 연구에서는 이들 각 이론들에 관한 검증이 아니라 가족 인구학(family demography)적 시각에서(Bunchand and Watcher, 1987) 미혼인구수 분석, 성혼정도, 성혼사례 분석, 결혼생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최근에 결혼을 한 재촌 기혼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이었다. 설문의 작성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시각 혹은 이론은 위에서 제시한 가족인구학적 시각이다. 이 설문조사표에는 이들 각 이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각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거주지, 직업경험, 연령)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혼인과정, 현재의 결혼생활에 관한 질문항목도 포함하였다.

본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은 경기도 화성군과 포천군에 거주하는 최근에 결혼을 한 농촌의 기혼 여성들이다. 199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5개월간의 연구자들과 관련 농촌지도사에 의한 무작위의 면접조사에 의하여 17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혼인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교차 분석을 하였다.

Ⅱ. 전국 단위의 지역별 미혼 인구수와 성혼정도

농촌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도시와 농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농촌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특별하게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조혼의 경향이 있었다. 〈표 1〉에서와 같이 1965년의 경우를 보면 농촌청년의 결혼 연령이 24.3세로 도시청년의 25.5세에 비하여 1.2세나 낮았다. 이 현상은 1980년까지만 하여도 계속되었으나 1985년에 들어 오면서 농촌남성의 결혼 연령이 도시에 비하여 높아지기 시작 하였다.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1990년에 와서는 농촌청년이 29.0세, 도시 청년이 28.4세로 오히려 농촌청년이 0.6세나 높게 되었다.

농촌의 적령인구 중에서 미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청년의 평균 결혼 연령인 29.0세를 지난 30~34세의 농촌남성 인구 가운데 미혼인구는 〈표 2〉와 같이 17.7%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같은 연령의 도시 미혼인구 비율인 12.8%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과거 1970년의 경우 면지역의 30~34세 남성인구의 불과 4.5%만이 미혼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이 연령층의 미혼인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미혼남성 인구수에 비하여 미혼여성 인구수와 비율이 여전히 낮다. 〈표 3〉과 같이 1990년의 경우 농촌지역의 미혼남성 인구는 1,546천명이나 미혼여성 인구는 934천명

표 1 지역별 평균 초혼 연령의 변화

단위 : 세

구 분	도 시		농 촌		전 국	
	남	여	남	여	남	여
1955	25.5	21.5	24.3	20.1	24.5	20.4
1960	26.8	22.8	24.9	21.0	25.4	21.6
1966	27.7	24.0	26.1	22.0	26.7	22.8
1970	27.5	23.8	26.8	22.6	27.1	23.3
1975	27.6	24.2	27.1	22.9	27.4	23.6
1980	27.4	24.3	27.3	23.5	27.3	24.1
1985	27.8	25.0	27.9	24.0	27.8	24.8
1990	28.4	25.5	29.0	25.1	28.6	25.5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보고」, 각년도.

표 2 농촌지역의 미혼남여 인구비율 변화[1)]

단위 :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19	99.6	96.0	96.6	96.0	99.7	97.6	99.8	98.7	99.9	99.4
20～24	91.7	50.0	92.1	53.0	93.2	59.7	95.8	63.2	97.3	78.1
25～29	40.0	4.6	44.4	6.5	47.0	9.2	53.8	12.7	60.5	19.6
30～34	4.5	0.6	5.6	0.8	7.5	1.2	10.9	2.1	17.7	3.9
35세이상	0.3	0.1	0.4	0.1	0.6	0.2	1.0	0.2	1.6	0.5
계	32.0	18.7	36.9	2.5	36.9	21.3	37.3	19.6	36.4	22.0

1) 1970～1985년은 면지역이고, 1990년은 읍과 면지역의 자료임.

표 3 지역별 미혼인구수(15세 이상)

단위 : 명, %

구 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도 시	남	1,221,213	1,691,115	2,343,833	3,003,558	3,680,178	4,494,301
	여	904,820	1,292,043	1,901,126	2,410,664	2,985,288	3,538,272
	성비	135.0	130.9	123.3	124.6	123.3	127.0
농 촌	남	1,744,218	1,643,766	1,972,103	1,929,296	1,848,021	1,546,306
	여	1,021,098	1,010,858	1,195,965	1,190,032	1,048,432	934,516
	성비	170.8	162.6	164.9	162.1	176.3	165.5
전 국	남	2,965,431	2,334,881	4,315,936	4,932,854	5,528,199	6,040,607
	여	1,925,918	2,302,901	3,097,091	3,600,696	4,033,720	4,472,788
	성비	154.0	144.8	139.4	137.0	137.0	135.1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보고」 각년도

으로 농촌지역에 612천명의 미혼여성 인구가 적다. 성비(sex ratio)로는 미혼여성 인구 100명에 남성이 167명으로 도시의 127명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평균 결혼 연령과 가까운 20～34세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표 4〉와 같이 농촌의 미혼 남성인구가 938천명, 여성인구가 382천명으로 556천명의 여성인구가 부족하고 성비로도 여성인구 100명에 남성인구가 24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는 여성인구

표 4 혼인 적령기 남여 구성비, 1990

단위 : 명, %

구 분		20~24세	25~29세	30~34세	계
도 시	남(A)	1,548,634	955,927	220,191	2,724,752
	여(B)	1,364,289	390,215	92,169	1,846,673
	A/B	113.5	245.0	238.9	147.5
농 촌	남(A)	606,691	257,985	73,168	937,844
	여(B)	291,203	75,185	15,241	381,629
	A/B	208.3	343.1	480.1	245.7
전 국	남(A)	2,155,325	1,213,912	293,359	3,662,596
	여(B)	1,655,492	465,400	107,410	2,228,302
	A/B	130.2	260.8	273.1	164.4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보고」, 각년도.

표 5 지역별 성혼건수

단위 : 건

구 분	도 시	농 촌	전 국
1986	240,137	127,271	367,408
1987	238,020	117,770	355,790
1988	201,654	94,525	296,179
1989	225,388	84,484	309,87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 결과 연보」, 각년도.

100명에 남성인구가 148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농촌지역에 미혼남성 인구가 숫적으로나 비율 면에서 많아 성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에도 상당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흔히 간과하고 있다. 〈표 5〉와 같이 농촌지역의 혼인건수가 1986년의 경우 127,271건, 1987년 117,770건, 1988년 94,525건, 1989년 84,48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정도의 결혼이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Ⅲ. 재촌 기혼여성들의 성혼사례 분석

1. 응답자의 일반현황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남편이 38.7세, 부인이 34.9세로 비교적 그 연령이 낮은 편이며, 학력별로는 남편은 고졸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30.0%), 국졸(14.6%), 대졸(2.3%)의 순이었으며, 반면 부인은 고졸(38.5%), 중졸(33.1%), 국졸(26.2%)의 순으로 비교적 학력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부인의 학력이 남편에 비하여 약간 낮은 편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종교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종교가 없는 경우가 55.3%로 가

장 많았으며, 두 사람이 같은 종교를 가진 경우가 29.5%이며, 15.2%는 두 사람의 종교가 각각 달랐다.

자녀수를 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67.9%, 2명인 경우가 11.7%, 3명 이상인 경우가 3.1%로 나타나 자녀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67.2%는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였다. 시부모 두 분 다 모시는 경우가 32.8%, 한쪽의 시부모만 모시는 경우는 34.4%였다.

농촌청년과 최근에 결혼을 한 부인들의 농사일 참여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다른 가족을 돕는 정도가 36.8%,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일함이 32.7%로, 이 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1년 이후 결혼한 부인의 경우 농사일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즉, 1981년 이후 결혼한 부인중 20~30%가 농사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농가주부의 농외취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결혼연도별로 농가주부의 농외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1975년 이전에 결혼한 주부의 농외취업율이 40~50%로 매우 높으나 최근에 결혼을 한 주부일수록 농외취업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결혼을 한 주부는 자녀가 아직 어려 자녀 양육관계로 농외취업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농외취업자의 취업분야는 가정부업이 가장 많고, 공장취업, 날품팔이, 상업, 회사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는 영농규모가 1,500평 미만이 11.4%, 1,500~3,000평 미만이 29.8%, 3,000평 이상 5,000평 미만이 35.1%, 5,000평 이상이 22.7%로 각각 나타났는데, 비교적 영농 규모가 큰 편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생활정도는 상이 14.2%, 중이 70.1%, 하가 15.7%로 중에 많이 몰려있었다.

2. 부인의 결혼전 상황

비교적 최근에 농촌청년과 결혼을 한 여성들이 어떻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어떻한 특성을 가진 여성이 농촌청년과 결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농촌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결혼전에 어디에 거주하였으며, 도시 거주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업보유 상황은 어떻하였으며, 특히 농사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먼저 농촌청년과 결혼을 한 여성들의 도시 거주여부를 살펴보면 〈표6〉과 같이 응답자의 70.1%가 도시 거주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었다. 결혼연도별로는 1975년 이전에 시집을 온 여성들의 도시 거주경험은 30~40%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1976년 이후에 결혼을 한 여성들의 70~90%가 도시 거주경험을 갖고 있었다. 즉, 최근에 농촌으로 시집을 간 대부분의 여성들이 도시 거주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들어올수록 농촌여성들의 대부분이 도시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표 6 혼인시기별 결혼전 도시거주 경험여부[1)]

단위 : 명(%)

도시거주 여부 / 혼인시기	경험 있음[2)]	경험 없음	계	도시거주 경험자의 평균 거주기간
1970년 이전	11(37.9)	18(62.1)	29(100.0)	9.3년
1971~1975	11(42.3)	15(57.7)	26(100.0)	6.0년
1976~1980	23(92.0)	2(8.0)	25(100.0)	10.0년
1981~1985	40(78.4)	11(21.6)	51(100.0)	8.4년
1986~1990	37(86.1)	6(14.0)	43(100.0)	8.1년
계	122(70.1)	52(29.9)	174(100.0)	8.4년

1) 무응답자 4명 제외.

2) 도시거주 지역으로는 대도시 78.8%, 도청소재지 10.6%, 중소도시 10.6%로 각각 나타났음.

농촌처녀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나가있는 농촌 현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거주 경험을 가진 여성의 78.8%가 대도시에서 거주한 바 있고(그밖에 도청소재지가 10.6%, 중소도시가 10.6%임), 평균 8.4년의 도시거주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조사대상 지역이 경기도 포천군과 화성군의 수도권 인근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농촌청년과 결혼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여성들의 상당수는 도시거주 경험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그에 따라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결혼당사자들의 결혼 직전 거주지 일치율은 더욱 낮아지리라 예상된다.

농민의 부인들은 결혼 전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까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여겨진다. 〈표 7〉은 혼인시기별 결혼전 부인의 직업보유 상황을 살펴본 것인데, 전체적으로 72.4%가 결혼 전에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혼인시기별로는 1975년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는 직업을 가졌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면 1975년 이후에 결혼을 한 자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결혼 전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업은 거의 없는 반면 회사원이 전체의 37.3%로 가장 많았으며(이에는 사무직과 전화 교환원 등

표 7 혼인시기별 부인의 결혼전 직업보유 여부[1)]

단위 : 명(%)

직업유무 / 혼인시기	직업있었음	직업없었음	계
1970년 이전	11(36.7)	19(63.3)	30(100.0)
1971~1975	13(52.0)	12(48.0)	25(100.0)
1976~1980	18(72.0)	7(28.0)	25(100.0)
1981~1985	44(86.3)	7(13.7)	51(100.0)
1986~1990	40(93.0)	3(7.0)	43(100.0)
계	126(72.4)	48(27.6)	174(100.0)

1) 무응답자 4명 제외.

도 포함됨), 다음은 공원(재봉사 포함)이 31.7%로 비교적 많아 이 두 직업에 여성들의 상당수(69%)가 몰려 있었으며, 반면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비율은 낮았는데, 그것들은 공무원이나 유치원 보모가 7.9%, 판매원 4.0%, 미용사 2.4%, 양품점 점원 2.4%, 간호원 1.6% 등이었다.

결혼전에 농사일을 경험하지 않았던 여성이 농민과 결혼하여 과연 잘살 수 있을까는 검증되어 볼 필요가 있는 한 항목이다. 왜냐하면 농민은 농업이라는 직업을 가진 일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즉 농업은 가정단위로 운영되는 가족기업이다. 특히 최근 농촌의 임료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고임금시대의 농업을 유지하자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부인의 농업 참여이기 때문이다. 농촌청년과 결혼한 부인들은 〈표 8〉과 같이 전체적으로 58.8%가 농사일을 결혼 전에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약간 해 보았다가 30.0%, 많이 해 보았다는 11.2%였다. 결혼연도별로는 1975년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 비교적 농사일을 해 본 경우가 많았다.

3. 농촌 기혼여성의 혼인연령과 통혼권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혼인연령이 일반적으로 낮았다가 최근의 혼인난에 의하여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대상 부부들의 결혼연령도 〈표 9〉와 같이 최근에 결혼을 한 부부일수록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지난 1970년 이전에 결혼을 한 남편은 26.1세, 부인은 21.3세이나 1986~1990년에 결혼을 한 경우 남편이 28.8세, 부인이 25.1세로 나타나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촌지역내 처녀·총각의 이촌과 재촌 청년의 결혼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배우자 선택에서의 지리적 거리의 문제, 즉 통혼권이 중요해진다. 통혼권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현상은 도시와 농촌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 경향에 맞추어서 농촌기혼여성들의 통혼권도 점차 넓혀지고 있다. 농촌에서 최근에 결혼을 한 부부의 통혼권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거주하는 도 밖의 지역이 차지

표 8 **혼인시기별 결혼전 부인의 농사일 정도**[1)]

단위 : 명(%)

농사일정도 / 혼인시기	많이 해 보았음	약간 해 보았음	안 해 보았음	계
1970년 이전	7(23.3)	9(30.0)	14(46.7)	30(100.0)
1971~1975	2(8.0)	11(44.0)	12(48.0)	25(100.0)
1976~1980	2(8.3)	5(20.8)	17(70.8)	24(100.0)
1981~1985	7(14.6)	12(25.0)	29(60.4)	48(100.0)
1986~1990	1(2.3)	14(32.6)	28(65.1)	43(100.0)
계	19(11.2)	5(30.0)	100(58.8)	170(100.0)

1) 무응답자 8명 제외.

표 9 **혼인시기별 남편과 부인의 현재 연령과 결혼연령**

단위 : 세

혼인연령 / 혼인시기	남편 결혼 연령	부인 결혼 연령	남편 현재 연령	부인 현재 연령
1970년 이전	26.1	21.3	52.4	47.4
1971~1975	28.1	24.5	44.5	39.8
1976~1980	26.9	23.4	39.0	35.8
1981~1985	27.1	24.3	33.5	30.6
1986~1990	28.8	25.1	31.7	27.6
계	27.5	23.9	38.7	34.9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즉, 1971~1975년에 결혼을 한 자가 26.9%이나 1986~1990년에 결혼을 한 자는 58.1%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군내에서 결혼을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부부의 결혼직전 거주지 일치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4. 배우자 선택과정

농촌지역 청년들의 결혼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최근 농촌에서 결혼을 한 자들의 배우자 선택과정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연애에 의한 결혼은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연애결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1970년 이전에는 전적으로 중매혼에

표 10 혼인시기별 통혼권[1)]

단위 : 명(%)

통혼권 / 혼인시기	동일부락	동일면	동일군	동일도	도 외	계
1970년 이전	4(12.9)	4(12.9)	3(9.7)	8(25.8)	12(38.7)	31(100.0)
1971~1975	2(7.7)	1(3.9)	10(38.5)	6(23.1)	7(26.9)	26(100.0)
1976~1980	0(0.0)	3(12.0)	6(24.0)	6(24.0)	10(40.0)	25(100.0)
1981~1985	2(3.9)	8(15.7)	10(19.6)	10(19.6)	21(41.2)	51(100.0)
1986~1990	3(7.0)	0(0.0)	4(9.3)	11(25.6)	25(58.1)	43(100.0)
계	11(6.3)	16(9.1)	33(18.8)	41(23.3)	75(42.6)	176(100.0)

1) 무응답자 2명 제외.

표 11 혼인시기별 결혼유형[1)]

단위 : 명(%)

결혼유형 / 혼인시기	연애[2)] (자유)	중매				중매후 연애[3)] (절충)	계
		친척·친지 중매	결혼상담소 중매	이웃 중매	기타 중매		
1970년 이전	0(0.0)	21(67.7)	0(0.0)	8(25.8)	2(6.5)	0(0.0)	31(100.0)
1971~1975	4(15.4)	18(69.2)	0(0.0)	2(7.7)	2(7.7)	0(0.0)	26(100.0)
1976~1980	5(20.0)	14(56.0)	1(4.0)	3(12..0)	0(0.0)	2(8.0)	25(100.0)
1981~1985	13(25.5)	22(43.1)	1(2.0)	10(19.6)	4(7.8)	1(2.0)	51(100.0)
1986~1990	20(46.5)	12(27.9)	1(2.3)	5(11.6)	3(7.0)	2(4.7)	43(100.0)
계	42(23.9)	87(49.4)	3(1.7)	28(15.9)	11(6.3)	5(2.8)	176(100.0)

1) 무응답자 2명 제외.

2) 연애기간 평균 2.3년. 3) 중매후 연애기간 평균 7.1개월

표 12 혼인시기별 배우자 선택방법[1)]

단위 : 명(%)

선택방법 / 혼인시기	부모선택	부모선정 당사자동의	당사자선정 부모동의	당사자 간의 선정	계
1970년 이전	10(32.3)	15(48.4)	3(9.7)	3(9.7)	31(100.0)
1971~1975	3(11.5)	12(46.2)	11(42.3)	1(0.0)	26(100.0)
1976~1980	1(4.0)	7(28.0)	16(64.0)	1(4.0)	25(100.0)
1981~1985	1(2.0)	13(25.5)	32(62.8)	5(9.8)	51(100.0)
1986~1990	1(2.3)	7(16.3)	29(67.4)	6(14.0)	43(100.0)
계	16(9.1)	54(30.7)	91(51.7)	15(8.5)	176(100.0)

1) 무응답자 2명 제외.

의존하고 있었다. 1970년 이후 시작된 연애결혼은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그 비율이 점차 높게 나타났다(연애결혼자는 평균 2.3년 동안의 연애를 하였음). 반면 친척이나 친지에 의한 중매는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1976년 이후 '중매후 연애형태'가 결혼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중매후 연애기간은 7.1개월임). 이것을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자유혼인이 적고 중매에 의한 혼인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경제기획원, 1991)

〈표 12〉는 혼인시기별 결혼방법인데, 지난 1970년 이전에 결혼한 자는 부모가 선정하고 당사자가 동의, 부모선택의 경우가 높았으나 그 비율은 최근에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크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선정하여 부모 동의를 구하는 것과 당사자끼리 정하는 비율이 점차 최근의 결혼자일수록 높아지고 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몇 가지 결정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 결정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순서를 보면 〈표 13〉과 같이 성격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래성 19.1%, 신체조건 13.3%, 애정 11.6%, 집안환경 9.3%, 경제력 3.5%, 용모 2.9%의 순이었다.

결혼을 한지 오래된 부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래성, 신체조건, 집안환경을 더 많이 고려하였으며, 반면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성격과 애정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그만큼 배우자 선정에서 결혼조건보다는 애정이 점차 더 중요하여 짐을 알 수 있다.

5. 혼인과정

최근 혼수비용 마련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혼수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농촌으로 시집을 간 여성들은 〈표 14〉와 같이 평균 236만원의 혼수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최근에 결혼을 한 여성일수록 부모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자신의 저축에 의한 경우가 점차 높아

표 13 혼인시기별 배우자 선택시 고려한 가장 큰 비중[1)]

단위 : 명(%)

기준 / 혼인시기	성격 (인간성)	신체조건 (건강)	용모	장래성	집안환경 (가문)	경제력	애정	계
1970년 이전	7(24.1)	6(20.7)	0(0.0)	9(31.0)	5(17.2)	0(0.0)	2(6.9)	29(100.0)
1971~1975	8(30.8)	4(15.4)	0(0.0)	8(30.8)	4(15.4)	1(3.9)	1(3.9)	26(100.0)
1976~1980	8(33.3)	3(12.5)	3(12.5)	4(16.7)	4(16.7)	1(4.2)	1(4.2)	24(100.0)
1981~1985	24(47.1)	6(11.8)	2(3.9)	7(13.7)	2(3.9)	3(5.9)	7(13.7)	51(100.0)
1986~1990	23(53.5)	4(9.3)	0(0.0)	5(11.6)	1(2.3)	1(2.3)	9(20.9)	43(100.0)
계	70(40.5)	23(13.3)	5(2.9)	33(19.1)	16(9.3)	6(3.5)	20(11.6)	173(100.0)

1) 무응답자 5명 제외.

표 14 혼인시기별 부인의 혼수비용 마련 방법[1)]

단위 : 명(%)

혼수비용 마련방법 / 혼인시기	자신의 저축	부모 지원	기 타	계	혼수비용 평 균 (경상가격)
1970년 이전	7(24.1)	21(72.4)	1(3.5)	29(100.0)	27.8만원
1971~1975	8(32.0)	17(68.0)	0(0.0)	25(100.0)	110.7만원
1976~1980	12(52.2)	10(43.5)	1(4.4)	23(100.0)	221.3만원
1981~1985	27(52.9)	24(47.1)	0(0.0)	51(100.0)	254.1만원
1986~1990	31(72.1)	10(23.3)	2(4.7)	43(100.0)	430.0만원
계	85(49.7)	82(48.0)	4(2.4)	171(100.0)	236.3만원

1) 무응답자 7명 제외.

지고 있다. 즉, 1981~1985년에 결혼을 한 여성은 평균 254만원을 혼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1986~1990년에 결혼을 한 여성은 평균 430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인 혼인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약혼 여부로는 〈표 15〉와 같이 1971년 이후에 약혼을 하였던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1986~1990년에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27.0%만이 약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혼인방법도 〈표 16〉과 같이 1970년 이전에는 구식이 많았으나 1971년 이후에는 신식 결혼이 더 많아졌다. 최근에 결혼을 한 부부일수록 신식 결혼이 많아 1986~1990년 결혼자의 경우 97.6%가 신식이었다.

결혼장소는 〈표 17〉과 같이 1970년 이전에 결혼한 부부는 자택(가정)이 가장 많았으며(이것은 구식 결혼이 가장 많은 것과도

표 15 혼인시기별 약혼 여부[1)]

단위 : 명(%)

약혼여부 / 혼인시기	하였었다	하지 않았었다	계
1970년 이전	4(16.7)	20(83.3)	24(100.0)
1971～1975	15(71.4)	6(28.6)	21(100.0)
1976～1980	9(45.0)	11(55.0)	20(100.0)
1981～1985	16(39.0)	25(61.0)	41(100.0)
1986～1990	10(27.0)	27(73.0)	37(100.0)
계	54(37.5)	89(61.8)	143(100.0)

1) 무응답자 35명 제외.

표 16 혼인시기별 혼인방법[1)]

단위 : 명(%)

혼인방법 / 혼인시기	구식	신식	계
1970년 이전	23(74.2)	8(25.8)	31(100.0)
1971～1975	9(36.0)	16(64.0)	25(100.0)
1976～1980	1(4.4)	22(95.7)	23(100.0)
1981～1985	2(3.9)	49(96.1)	51(100.0)
1986～1990	1(2.4)	41(97.6)	42(100.0)
계	36(20.9)	136(79.1)	172(100.0)

1) 무응답자 6명 제외.

표 17 혼인시기별 결혼장소[1)]

단위 : 명(%)

결혼장소 / 혼인시기	예 식 장	주 택	기타	계
1970년 이전	5(20.8)	17(60.7)	2(8.4)	24(100.0)
1971～1975	10(47.6)	7(33.3)	4(19.1)	21(100.0)
1976～1980	12(60.0)	1(5.0)	7(35.0)	20(100.0)
1981～1985	35(72.9)	2(4.2)	11(23.0)	48(100.0)
1986～1990	25(67.6)	1(2.7)	11(29.7)	37(100.0)
계	87(58.0)	28(18.7)	35(23.4)	150(100.0)

1) 무응답자 28명 제외.

일치된다고 보여진다) 1971～1975년 결혼자의 경우도 자택(가정)이 33.3%로 비교적 높았으나, 1971년 이후 결혼자는 예식장이 가장 많았으며, 1976년 이후에는 교회, 공공회관등의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도시와 비교하면 최근에 이루어지는 결혼은 도시·농촌 모두 예식장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다(경제기획원, 1991).

혼인은 인륜지 대사로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농촌 청년의 결혼문제가 어려워 사회문제화되자 결혼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표 18〉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농촌청년과 결혼을 한 여성들은 애로사항이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5.2%는 애로사항이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하여 의외의 결과였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경우에는 남편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것이 25.5%, 친정부모의 이해부족이 17.6%, 혼수비용 마련이 12.7%, 기

표 18 혼인시기별 결혼의 애로사항[1)]

단위 : 명(%)

애로사항 / 혼인시기	친정부모 이해부족	혼수비용 마련	남편의 직업 관계	기타	애로사항 없 었 음	계
1970년 이전	6(20.7)	3(10.3)	5(17.2)	3(10.3)	12(41.4)	29(100.0)
1971~1975	3(13.0)	4(17.4)	7(30.4)	4(17.4)	5(21.7)	23(100.0)
1976~1980	4(16.7)	2(8.3)	13(54.2)	0(0.0)	5(20.8)	24(100.0)
1981~1985	9(18.8)	7(14.6)	8(16.7)	5(10.4)	19(39.6)	48(100.0)
1986~1990	7(17.1)	5(12.2)	9(22.0)	3(7.3)	17(41.5)	41(100.0)
계	29(17.6)	21(12.7)	42(25.5)	15(9.1)	58(35.2)	165(100.0)

1) 무응답자 13명 제외.

표 19 남편의 가사일 협조 정도[1)]

남편의 가사일 협조정도	빈 도	백분비
많이 도와줌	41	23.6
조금 도와줌	95	54.6
거의 도와주지 않음	29	16.7
전혀 도와주지 않음	9	5.2
계	174	100.1

1) 가정일 결정중 81.5%는 부부가 같이 상의하여 남편이 결정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0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결혼 만족 정도	빈 도	백분비
매 우 만 족	21	12.0
만 족	64	36.6
보 통	77	44.0
불 만	13	7.4
계	175	100.0

타가 9.1%로 나타났다.

6. 혼인결과로서의 결혼생활

최근 농촌에서 결혼을 한 부부들이 가정일을 결정하는 경우를 보면 〈표 19〉와 같이 81.5%는 부부가 같이 상의하여 남편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느 정도 민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 남성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편으로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졌으나 본 조사 결과 최근에 결혼을 한 남편들은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하여 불만보다는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표 20〉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즉, 농촌기혼 여성의 12.0%가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 36.6%는 만족으로 합계 48.6%가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불만은 7.4%에 불과하였다.

가정생활에 불만인 자의 불만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고, 남편의 주벽이 심한 등의 남편의 문제와, 농촌에는 취미생활이 불가능한 등 농촌의 문제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남편의 이해 부족, 농사일의 힘듬, 결혼 전에 비해 결혼후 남편이 달라짐 등을 들고 있다. 즉 농업문제, 농촌문제, 남편 관련사항이 농가 주부의 3대 불만 분야로 나타났다.

Ⅳ. 분석결과와 정책과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농촌으로 결혼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과정, 결혼생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청년과 최근에 결혼을 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도시거주 경험을 상당기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거주 지역은 거의 대도시지역이었다. 또 최근에 농촌으로 결혼을 한 여성들의 상당수가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농사일을 안해 본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것은 결국 농촌 청년과 최근에 결혼을 한 여성들이 도시에서 태어났든지 농촌에서 태어났더라도 도시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을 가져 농사일을 많이 해보지 못하였던 것 같다.

다음으로 결혼 연령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농촌은 도시보다 결혼을 일찍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 결혼을 하는 부부일수록 도시에 비하여 농촌에서 결혼 연령이 약간 높아지고, 농촌에서도 최근에 결혼을 하는 부부일수록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배우자 선택방법으로는 최근에 결혼한 부부도 중매가 아직은 가장 많았으나 점차 연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가 선정하거나, 부모가 선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고, 당사자끼리 혹은 당사자가 선정후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농촌청년을 배우자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선택기준으로는 성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에 결혼을 한 여성일수록 성격과 애정 등을 더 많이 고려하는 반면 신체, 집안환경, 장래성 등에 관하여는 점차 비중을 적게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구체적인 혼인과정에 들어가면 1986~1990년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430만원의 혼수마련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점차 자신들의 저축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었다. 약혼을 한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거의 대부분 최근에는 신식 결혼을 하며,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농촌청년과 결혼한 여성의 64.8%가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애로사항으로는 남편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것이 가장 높았고, 친정부모의 이해부족, 혼수비용 마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농촌청년과 결혼을 한 여성들의 도시거주 경험증가와 관련하여 통혼권이 점차 넓혀지고 있는데 (즉, 도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특히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더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농촌 청년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 농촌청년과 결혼을 한 여성들의 가정생활이 어떻한가는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이다. 흔히 농촌남성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부인과 상의하여 가정일을 결정하는 등 민주적인 면도 많이 있으며 남편들이 가사일도 비교적 많이 도와주는 편이었다. 농촌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만족정도는 불만보다는 만족이 더 높은 것 같았다. 가정 생활에 불만인 자의 불만이유로는 농업의 문제, 농촌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청년 결혼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가정으로서의 갖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성행위의 규제, 자녀 출산과 양육, 사회정서적 지지,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농업은 그 특성상 가족농(family farm)이 대부분인데, 즉 가구 단위로 농산물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농가에서 주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농가의 부녀자가 없으면 우리 나라의 농업은 쓰러질 것' 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펼치는 농촌청년 결혼문제에 관한 정책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농림수산부 농어촌복지담당관실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만남의 날 행사에 필요한 교통비, 음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의 경우에 가정복지연구회, 서울 YWCA,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에서는 농촌청년 성혼돕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촌지도소에 만남의 장과 신랑신부 교실을 운영하며, 적령기의 처녀·총각 명부 작성, 지역간 정보교류로 성혼을 알선하며, 성혼돕기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교재로 제작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농촌청년들이 겪고 있는 결혼문제의 어려움에 비하면 미흡한 감이 있다. 정부에서는 농촌청년들이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충분히 하여야 하겠다. 농가주부의 가사노동과 농업노동 부담경감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청년과 미혼여성의 교류 증대, 농촌청년과 결혼하는 미혼여성에 대한 특별지원(예 정착자금지원)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본다.

특히 농촌청년과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여야 겠다. 한 예를 들면 매스컴의 농촌청년 결혼과 관련한 보도 과정에서 흥미위주로 흐를 가능성에 따라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농촌에는 상당수의 농촌청년이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올바른 실태에 관하여 언론은 간과하기가 싶다. 그러므로 농촌 청년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또 하나 농촌청년 자신들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청년농민들이 일반 농민들과는 다른 충분한 능력과 의욕이 있는 정예농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겠다. 그런 면에서 농업에 이미 정착하여 있거나 정착하려는 청년영농인들의 자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겠다. 그 방안으로서는 외국 농업에 대한

현지 견학 확대, 선진지 견학 확대, 도시견학 강화, 다양한 경험체득 기획 중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능력과 의욕을 갖춘 정예의 농촌청년들은 자신감으로 인하여 미혼여성과의 교제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외국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농업정책과 농촌개발이 전제된 상황에서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해결책은 농촌청년 자신들의 매력증진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강경하, "농촌 미혼여성의 결혼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경제기획원, 혼인·이혼통계 작성결과(인구동태 신고에 의한 분석), 1991.

경북농촌진흥원, "농촌청년 성혼돕기 추진현황," 농촌진흥청, 「농촌청년 성혼돕기 세미나 결과 보고서」, 1990.

공세권외 4인, 「한국가족구조의 변화－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_____,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0.

_____, ·김은주,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 「인구보건논집」, 1988.

김동일외 2인,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김성수, "농촌의 현실과 청년 결혼 문제," 서울 YWCA 농촌결혼문제 토론회 발표 원고, 1989. 6. 23.

_____외 4인, "농어촌 여성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촌 가정문제 세미나 발표 원고, 1989.

_____, "농촌청년 성혼돕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농촌진흥청, 「농촌청년 성혼돕기 세미나 결과 보고서」, 1990.

_____외 3인, "농촌청소년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 「서울대학교 새마을 운동종합연구」, 제5권 제1호, 1985.

김주숙,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활," 「한국농업·농민문제 연구」 I, 1988.

농협중앙회, "농촌청년 결혼문제 세미나," 1988.

여중철, "한국농촌의 지역적 통혼권," 「신라가야문화」, 9, 10집, 1978.

_____, "동족부락의 통혼권에 관한 연구 :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를 중심으로," 「인류학논집」1, 1975.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1990.

이성해, "도시근교 농촌의 혼인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문화논총」1, 1978.

이영대, "농촌미혼남녀 인구수 분석과 농촌청년 결혼문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1권 제4호, 1989.

_____, "농공단지 조성과 농촌여성의 참여실태," 「농촌생활과학」, 1990년 하계호, 1990.

이한방, "농촌지역 통혼권의 구조와 변화과정 :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동의 사례연구," 「지리학 논총」, 1987.

이화숙, "한국농촌 통혼권의 요인별 지역성－합천군민을 사례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이효재·김주숙,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활,"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30집, 1977.

_____, "한국결혼제도를 통해 본 변동의 유형,"

「진단학보」 31, 1968.

최민호외 2인, "농촌청년의 결혼문제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농학 연구」, 제 10권 제1호, 1985.

_____, ·김성수, "농촌청년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 결혼의 문제," 농어촌가정문제 세미나 발표 원고, 1989.

최양부,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한국농가의 성격변화와 과제," 아산사회복지재단 세미나 발표원고, 1988.

최재석,「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1988.

_____, "농촌통혼권의 변화,"「호남문화연구」, 7.

_____,「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_____, "제주도의 혼인의례와 그 사회적 의의－동부지역의 삼달리를 중심으로－,"「아세아 여성연구」 16, 1977.

_____, "제주도의 이·재혼제도와 비유교적 전통,"「진단학보」 43, 1977.

_____, "제주도의 첩제도,"「아세아 여성연구」 17, 1978.

_____,「한국농촌사회 연구」, 일지사, 1975.

최재율, "농촌통혼권의 성격과 변화－학림리의 혼인을 중심으로－,"「호남문화연구」, 17, 1975.

충북 농촌진흥원, "재촌 및 취업미혼여성의 결혼에 관한 의식조사보고서," 1987.

한국여성개발원,「우리농촌과 여성」, 대명출판사, 1990.

한상복, "원포 인근 농산어촌의 통혼권과 초혼연령,"「한국문화인류학회」 제15집, 1983.

Bahr, Stephen J., *Family Interactio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9.

Bunch, J. Bongaarts and Watcher, K.,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Clarendon Press, Oxford, 1987.

Deacon, Ruth E. and Francialle M.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88.

Kephart, William M., *The Family, Society, and the Individual*,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64.

Lamanna, Mary Ann and Agnes Riedmann, *Marriages and Families Making Choies and Facing Changes*, Belmont,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8.

Wells, J. Gipson, Choies in Marriage & Family, Jackson, Ms., Piedmont Press, Inc., 1984.